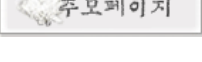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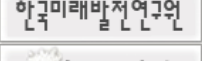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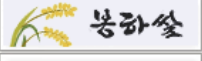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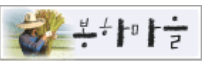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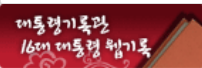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말과 글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조회수 : 124593
등록일 : 2008.03.27 15:4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니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이 며칠째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관한 질문에 댓글로 답을 하고,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지금/여기'님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아침회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를 해보니 모두들 용량초과입니다. 업무환경체계 잡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일정 관리하고, 손님맞이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벅찬데, 벌써 며칠째 동네 청소하고, 장군차 나무 심고, 장군차 시범마을 다녀오고, 동네사람들과 친환경 농업에 관해 토론하고, 이런 일까지 하자니 정신들이 없나 봅니다. 한 달째 아직 하루도 쉬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홈페이지를 며칠째 손보지 못한 것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회의 중에 진영 대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약속을 한 일이라, 나가서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손이 곱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한자 걸러서 오타가 나옵니다.

이제 새로 선보일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으로 갑니다. 베타 버전 테스트 중인데, 아직 버그도 많고, 개선할 일도 많고, 토론도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져 접근할 업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이니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시스템에 관한 한 쉽게 쓸 수 있게 개량하고 익숙해지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토론방법은 그 과정을 소화해 내기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토론 주제를 새롭게 정리해서 토론에 접근하기 쉽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글 마치면 토론 주제에 관한 제안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마치기도 전에 집 앞에서는 또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에 다섯 번 정도는 나가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은 물론 차도 한 잔 못 드리고, 그렇다고 무슨 편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볼 것도 없으니, 손님들에게는 마냥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약속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뒤엎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벌였다가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가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들어옵니다. 가끔 "뭐하냐? 지금도 바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궁극한 모양입니다. "누구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가 생선회를 가지고 와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와 있는 김해 상동 산딸기주가 맛이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와인 중에는 그중 입에 짝 붙습니다. 아직 대량생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베스트 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베스트 뷰는 편집 팀이 임의로 고른 것인지, 추천 수나 그 밖에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베스트 뷰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추천 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시판을 좀 보고 싶은데, 토론 정리가 바빠서 '민주주의 2.0'으로 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버그를 정리하고, 토론도 정리하여 공개를 해야 하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들 하니 공개를 하기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공개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3월 27일 14:00 노무현

노공이산 - 저도 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점한 임자가 있어서 '노공이산'으로 밀렸습니다.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총평 304개

다비도프 2008.03.27 16:46

노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멀티락 2008.03.27 17:06

근처에 좋은 낚시터도 많습니다^^ 낚시도 하세요^^
봉하마을 인근에 좋은 곳 정말 많습니다.
어종도 다양하고요.
제소원이 노대통령님과 밤낚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기를 바래요^^

마추피츄 2008.03.27 17:07

노짱은 감동 그자체!!
5공청문회때 전두환, 노태우 증인에게 당차게 질의하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로
줄곧 남을 존경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깨끗하게 국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라에 큰 봉사하신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국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들꽃바람 2008.03.27 17:12

메일 사진보며 위로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봉하를 다녀갔다는데도 전, 아직까지도 마음으로만 메일 다녀 온답니다. 울 카페에 들러서 노짱님 사진보며 위로
받고 반가운 소식없나 이곳 저곳 기웃거리 본 답니다. 봄이네요.. 사느라 바빠 나물이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사진보구 알았어요..
5월이 언젠나 오려나.... 5월엔 꼭 찾아뵙겠습니다. 울카페 회원님들과 함께. 건강하세요.. 우리 모두 노짱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일상아 2008.03.27 17:49

즐겁습니다...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보게 되네요...좀 전에 올리신 글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네요...행복합니다...지금 이 순간!!!

텔미 2008.03.27 17:50

노공이산님..
님과 참 잘어울리는 필명입니다.
일정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계속 건강한 모습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짱나라 2008.03.27 18:18

노공이산님..정말 좋은 필명입니다.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옮겨가다보면 언젠가 사람살기좋은 참세상이 오겠지요.
글까지 이렇게 구수하시다니.... 마음이 오롯이 전달됩니다. 상동산딸기주라 스읍~ 맛보고 싶네요.
건강하십시오.

촌놈발상 2008.03.27 18:23

이제나 저제나 했는디요.....^*^**
드더 노짱님에 5번째 편지!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는줄 알았네. ㅎㅎㅎ

寫廊사랑™ 2008.03.27 18:24

필명...^^*
원조(?)인 우공이산보다 훨씬 멋져 보입니다.

드골 2008.03.27 18:27

가입인사
그동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에야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공이산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모든것은 역사에 맡겨 두시고 이제부터 좀 여유를 갖고 생활을 즐기면서 더 슬기롭게 살아갈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살도끼 2008.03.27 19:04

노공이산님 감사합니다 그래두 오늘하루 희망을 보게되네요
ㅋ

어사모 2008.03.27 21:02

노
몇분동안 입안에서 곱씹어봅니다..

민주주의라는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느낌의 미학을 잊어버리고 사는것이 아닌가 다시 되새겨봅니다.

필명 하나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예구암튼 노짱님 땀에 늦은 나이에도 요즘 공부를 해야한다니까요... ㅎㅎ

늘 건강하시기를.....저는 봉하마을에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가볼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같이 등산할 행운이 떨어지기를 정화수 떠놓고 빕니다.

사랑해요 2008.03.27 21:28

노공이산!! 필명 참 어울리십니다.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구요.

그나저나 일정이 너무 많으신거 같아 참 걱정입니다. 손님들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다른 일을 보시기가 참 힘드실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 묵묵히 또 꾸준히 해가시려면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지 2008.03.27 21:39

건강하십시오..

좀 한가하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그래도 친구분과 회도 드시고 좋으십니다 건강 하십시오....

짱구 2008.03.28 02:06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노공이산님...아주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노공이산님을 멀리서나마 한번 뵈고싶을지....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꽃바람 2008.03.28 02:32

마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얼굴을 한 번도 뵈 적은 없지만

항상 마음에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친근함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글에 대통령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일정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끔은 여유를 즐겨서도 좋을 것 같아요^^

dbs5005 2008.03.28 08:07

참 좋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일반국민으로 돌아와 소탈하게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 하는게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미 2008.03.28 09:06

신기하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제는 아주 편한 어르신의 모습인것 같아서 저에게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있었다면 봉하마을에 가보았을거 같아요... 멀리 미국인지라... 마음속으로만 응원하고 함께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my sun 2008.03.28 09:28

님과 닮은 캐릭터가...

6살난 태양이가 컴퓨터 오락을 하다가 외칩니다..

"엄마 대통령이다 엄마 와봐..빨리"

집안일을 하다가 와서 보니 게임에 있는 캐릭터가 꼭 닮았습니니다.

황토색 옷에 모자에.....

태양이와 약속했습니다.

내일 꼭 대통령 보러 가자고...

여기선 대통령 보는게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 참 든든합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요...

Teddy 2008.03.28 10:04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문화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노공이산님.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Offline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2.0"으로 부터 개혁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늘 '노공이산'님께선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봄밤 2008.03.28 10:12

퇴임 후 라도 쉬어야할텐데..

그많은 사람의 편지 읽으시라,, 샅질하시라,,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챙기시고 오래오래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아르곤 2008.03.28 10:37

필명이 너무 노짱님과 잘 어울려요^^

너무 바쁘시죠? 진심으로 노짱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건강 챙기시기바랍니다!

마부위침 2008.03.28 10:52

희망이...

시절이 너무 하수상합니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려는지..한심하기도 하구요.

암튼 노공이산님이 하시면 뭐든 안되겠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구요. 평안하게 오픈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노공이산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에 더 그랬습니다.

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리차드 김 2008.03.28 11:10

눈물이 납니다.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3달된 딸아이와 각시랑 날씨풀리면 한번 뵈러가겠습니다.

아빠가 존경하는 분이 어떤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우리딸도

살면서 잊지말고 살아야 할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럼 빌때 까지 건강하세요.... [수정][삭제]

KONAN 2008.03.28 11:29

오랫만입니다.
늘 가슴속에 품은 뜻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5년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5년은 어찌될지...
이젠 우리가 그 5년을 잘 지켜서 다시 돌려야 겠지요!

진가람 2008.03.28 11:36

노공이산이 더 멋집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안좋은 소식만 접하다가 노공이산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화팅! 입니다.

청백 2008.03.28 11:41

한결같기바랍니다.
건강역시한결같기바랍니다.

해밀턴 2008.03.28 11:44

민주주의 2.0이 어서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커서 들때마다 관련 글을 읽고 가네요..^^

loveis 2008.03.28 11:46

울 노짱..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습니다...
정말 좋구요..
얼굴이 많이 까매 췌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좋긴한데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네요...
좀 쉬엄 쉬엄 하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
그또한 좋지만 그래두 쉬엄 쉬엄 하삼...

박달봉 2008.03.28 12:15

존경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몇번 들렀다가 오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임시에 이곳 대구시민들은 대다수가 노대통령님을 별로 좋게 평하지 않았지만 저는님의 솔직하고 정직함에 늘 존경심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다가 회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입하고 글을 남기면 더욱 힘이 나실것으로 생각되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kgg꿈들이 2008.03.28 12:27

왜 이리도 이슬이 맺히는지요
너무 존경합니다. 님을 지지하며 투표하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존경합니다.
변함없으신 신념과 정치철학, 그리고 퇴임 후의 모습 모두 존경, 또 존경스럽습니다.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님께 마음으로부터의 끝없는 존경심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님이 있어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메주님 2008.03.28 13:04

노공이산님 안녕하세요
참 좋은 필명입니다,,뭔가 따뜻한 느낌입니다
좀 쉬시기도 하셔야지요,,너무 바쁘신듯합니다

확률과 통계 2008.03.28 13:04

아버지 저 대전 양아들이예요
붕하 붕하 붕하...

돈가 2008.03.28 13:09

해바라기
아침에 가게와서 먼저하는 일이 홈페이지방문하는것으로 하루를 이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은영 2008.03.28 13:23

내 생애 첫 선거로 뽑은 대통령님..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편안해 보이셔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첫 선거에서 뽑은 나의 대통령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더 빛이 나실... 그런 대통령이셨다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철수사랑 2008.03.28 13:43

'노공' '노공께서 말하길' 줄여서 불러보니 멋스럽군요
노공의 노력이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죽장삿갓 2008.03.28 15:10

노공이산이라면...
너무 소박하신 것 같습니다.
盧公移國 하셔야지요. 참민주주의 나라로 가야지요.
저는 오늘도 역사에 남을 당신의 열정과 애국애민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금정의 재미 2008.03.28 15:19

5번째 편지

정답게 잘 받아봤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듯한 편안한 글
그리고 노공이산님께서 펼쳐보고자 하는 민주주의 2.0 이 대한민국을
서서히 바꿔가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고 미력이나마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통일만세 2008.03.28 15:35

서울에는 언제 오나요? 얼릉 뵙고 싶어요...ㅠ.ㅠ
서울에는 언제 오나요? 얼릉 뵙고 싶어요...ㅠ.ㅠ

문명 2008.03.28 16:04

노공이산님께
하루하루를 마음 편안이 계시는것 같아 좋아보입니다 언제어디게시나 어디서나 항상 노공이산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
시어 몸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투명한그림자 2008.03.28 16:31

노공이산님, 건강도 돌보시면서 활동 부탁 드립니다.
매번 올리신 글 잘 읽고 스스로도 다잡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다 오늘에서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다시한번 노공이산님의 실천하시는 모습 깊이 본 받겠습니다.
그나저나 바쁜 일정도 좋지만 건강도 돌보시면서 활동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docupia 2008.03.28 16:32

민주주의2.0 베타부터 시작하시지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해야 하는 대통령시절이 아닙니다..
저도 프로그램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오픈해 놓으시고..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민주주의 2.0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일 2008.03.28 17:26

노공이산님 ^^
건강하신모습 사진으로 보는 낙에 삽니다.
여견이 되시는대로 무지 몽매한 국민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사머리 2008.03.28 19:40

성지순례...
봉화마을과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지만(부산),

조용해지면 한번 마을에 놀러가겠습니다..

물코랏소 2008.03.28 20:07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기를.....

my sun 2008.03.29 07:33

오늘 남해가시나요?
오늘 남해 가시나요? 봉화마을 갈려고 하는데...가서 못뵙고 오면 너무 실망스러울것 같아요...일정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몽인 2008.03.29 08:39

감사합니다.
세상사는게 꿈과 같습니다.악몽도 있고 길몽도 있고 깨꿈도 있습니다.그래도 여기오면 제정신이 드는것 같습니다.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세상이 바뀌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국민의 아버지 이십니다.

짐주 2008.03.29 10:51

노공이산
노공이산님 우공이산보다 조으네요^^

한신 2008.03.30 00:47

우공이산님 멋지십니다.
한번 뵙고 싶네요. 건강하셔야됩니다.

에어무현 2008.03.30 00:54

멋져부러
노짱 멋져부러! 노짱과 직접 소통한다는게 신기하네요
봉화마을도 좋지만 온 나라를 위해 캠페인같은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사람소중하다는것, 언론의 외국어 남발 ,따뜻한 사회만들기 등등
건강하세요

당수골 2008.03.30 10:13

제가 살고있는 곳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봉화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장군차 나무를 심어셨다구요...나무에 참 좋은 비가 아닌가 싶네요.....

평화 2008.03.30 10:30

무현이홍
사실 무현이형님만 우리에게 희망과웃음을주는데.. 나도주고싶다..
근데 개제없을거같아서... 그래도 언제한번크게웃고드리겠습니다.. 무현이형짱~

my sun 2008.03.30 14:23

"나와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그 속에 저도 있었어요 ^O^
어제 오후에 가서 뵙고 왔어요 30분을 더 기다려 두변이나요...그래도 많이 많이 아쉬웠어요..
"여보~~"하고 부르시는게 참 구수하고 듣기 좋았어요..
인기탓에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처럼 정말 인기가 많으신데 왜 방송국에서 섭외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는 차안에서 아들이 하는말이 "엄마 대통령 참 멋지다"라고 했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 웃음, 그 여유 간직하시기를....

대륙 2008.03.30 20:57

어제는 철야기도 가고, 또 일도 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랫동안이지요? 많은 관심 속에 바쁘게 보내시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일 등 바빠 보내다보니 컴 앞에 앉기가 힘들어요. 맘으론 늘 건강하시고 봄바람을 보내지요.
잘 맞으셨나요. 오늘은 모처럼의 방문으로 행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윤정쓰 2008.03.31 08:58

답답해서 들러봅니다.

대운하에 금산분리 완화에 민영의료보험에 답답해서 들러봅니다.

대운하만 생각하면 답답한데, 총선이 어찌될런지요 TTT

노공이산님이 그립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푸근한 모습 보여주세요 ^^

러브진 2008.03.31 09:41

너무 힘들때 내가 찾는곳~ 바로 여기!!!

요즘 사는게 넘 힘듭니다.. 가끔은 모든걸 벗어나서 쉬고 싶습니다..

그럴때 여기를 찾아오게 되네요..^^

저에게 힘이 되어 주는 당신.. 노짱!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4자후 2008.03.31 13:21

노공, 다음 주에 한 번 뵙지요.

처음에는 이번 주에 가족여행삼아 봉화마을 가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날씨가 나빠서 좀 더 가까운 대구에 들러서 유시민의원 유세하는 곳에만 다녀왔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만큼이나마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욕듣지 않는 선조가 되야겠다 싶네요.

노공에 대한 고마움을 세기고자 다음주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보리수아래 2008.03.31 22:33

노공이산님 멋지십니다

대통령직에 계실때도 마쁘시더니 여전하십니다. 우매한 국민들을 걱정하시는

노공이산님, 항상 몸 건강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my sun 2008.04.01 19:44

내 마음이...

여기 올때마다 가슴이 쩡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눈물이 날것 같아요

북덕방박부장 2008.04.02 00:20

감사합니다.

우공이산..저에게 너무 힘이 되네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푸름나무 2008.04.02 01:26

또 왔어요-

제법 한가한 저두 자주 못오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쩔 이리 글도 맛깔나게 멋스럽게 잘쓰시는지...전 나이 스물이 훌쩍 넘
었어도 한글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때 많은땀..--;;

세상 2008.04.02 03:13

노통님과 딱..이다

이곳에 들리는것이..하루의 시작이 된네요

청와대완...또다른..느낌입니다.

님..종쿠여..편해여..몸조심하시구여..

잔월 2008.04.02 11:15

가까이 살면서

일이 바빠 간다 간다 하면서 한번도 못갔습니다..

피티훈 2008.04.02 14:37

감사합니다

언제나 노무현대통령님의 소식이 궁금한데 이렇게 라도 전해 들을수 있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하느라
정말 바쁘신듯 합니다. 항상 건강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등대와별 2008.04.02 14:46

별을 보는 마음이 어떨는지요

아무데서나 밤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이 보이는 곳이라도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냐에 따라 느낌이
이 다르겠지요?! 내려 놓은 것이 많으셔서 별에게 내어 줄 한숨이 많으실지... 아니면 적을지 랜스레 궁금해집니다.

예현아빠 2008.04.02 22:39

기분이 우울하면~~

기분이 우울하면 당신을 찾게 됩니다

큰 산같은신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my sun 2008.04.03 09:09

6번째 편지 읽고 싶어요

바쁘신줄 알지만 6번째 편지 읽고 싶어요..이러다 몸살나시겠어요 장군차 심으시랴 손님 맞이하시랴..

my sun 2008.04.03 18:12

책임지세요

내 마음 훑쳐간 사람...노짱!!

별해는밤 2008.04.03 20:28

건강 챙기세요.
컫 댓글이네요.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라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my sun 2008.04.04 10:00

매일 들어오는 이 병의 원인은?
저도 바빠요 매일 몇번씩 들어오거든요...중독이에요..근데 치료는 하기 싫어요

간큰사내 2008.04.04 12:58

아주 딱입니다...
"노공이산" 아~주 딱입니다 우공이산님이 노짱의 필명을 지어드렸네요^^

my sun 2008.04.04 21:29

지난주에 갔다가 타이어 펑크났어요
1년된 타이어인데..이래저래 제 마음도 남편 마음도 여기 다 뺏기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로??..그래도 또 가고싶네요..봉화...그립습니다

대륜 2008.04.05 00:15

노오란 프리지아 꽃 향기를 ...
봉하마을로 보냈습니다. 찾아가는 손님들에게도 나눠주시고요.
햇빛 사이로 연초록을 갖고 싹을 띄우는 새 봄을 늘 우울하게 맞았는데
요즘은 저도 넘 바빠서요. 하늘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사람사는 세상'에서 한가함을 맛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장군차 핫팅^^*

에그리나 2008.04.05 09:41

노간지를 아신다구요?
난 노간지라해서 그걸 신문매체인 주간지의 주자만 빼고 그걸 노자를 붙여서 노간지라고 하는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본
다는 뜻 아닐까요 노대통령소식을 말입니다

통일消贊 2008.04.05 11:10

통일消贊을 기다리며...
2002년 대선 기간, 서프에서 몇 자 적고 단숨에 대문 직행하며
동료 직원들과 기뻐했던 시절 이후 오랫동안의 Best 눈팅족.
진정으로 기다려 집니다. '민주주의 2.0'. 더욱 진보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消贊을 위해서 작은 정성 보태겠습니다.

초록마녀 2008.04.08 10:16

처음으로 글 남겨보아요 ^^
매번 올 때마다 노대통령님 글 읽고 다른 사람 글 읽고 그냥 나갔는데.. 오늘 용기를 내어서
글 남겨봅니다. 늘 지극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연꽃한잎 2008.04.09 14:01

너무 보기좋아요 ^^
지금 저희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처럼 늘 평온 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무현전대통령님을 정말 좋아하는 저의 진심이랍니다
항상 평온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행복하세요 ^^

대통령이셨을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부가 궁금해지겠지요
가끔 들리게요 ~

또 봐요 ^^

함께읽기 2008.04.09 15:21

찾아가는게 민폐는 아닌지..
모, 우리가 강 노공이산님을 한번 뵙는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차한잔 대접못하는거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되려, 쉬시는데, 수시
로 나왔다 들어가셔야 하는게 일이 아닐가 싶어, 죄송하더군요..
입구에 있는 나무에 걸린 글귀, 누구의 정성인지 참 좋았습니다..
'그대여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호 卜 늘소 2008.04.10 00:37

저의 마음처럼 부산에도 비가 계속 내립니다...그러나...
선거결과에 오후부터 저의 마음에도 비가내리네요...하지만 노공이산님의 주름살과 밝은 웃음을 생각하면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내일을 다시 한 번 꿈꾸어봅니다...

산처럼 2008.04.10 19:59

세상살이가 짜증나면
여기에 오면 행복해지네요. 건강하세요

요탱 2008.04.10 20:35

아쉬움이 남는 하루...
저번 4월5일 일이있어 봉하마을에 찾아뵙는데 얼굴은 못 보았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또 언제쯤 갈수있으려나...

쌍둥이맘 2008.04.10 22:22

하루빨리 뵙고싶어요..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하답니다.노무현대통령님 내외분을 뵈면 기분이 좋아질거 같아요^^

멋져브러 2008.04.11 02:35

멋진 대통령님!!! 찾팅요...

퇴임후 멋진모습.. 님 보기 좋습니다. 내마음의 대통령이십니다...옆에서 묵묵히 내조하시는 여사님도 님 멋지시구요...역시 이나라의 어머니이십니다...

O해송Q 2008.04.11 18:07

드더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공식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기쁜소식에 몇번이나 시도를 해봤지만 도저히 접속을 할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바쁜일등으로 인해서.....이제사나마...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순신 다음으로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ㅎㅎ 여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것만으로도.....가슴이 설레입니다....^^

졸병^^ 2008.04.12 18:06

그럽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동네에 유시민 의원께서 출마하셨다가 그저께 낙선하셨어요ㅜㅜ 대통령님께 투표할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그래도 선전하셨지요.다음에 유시민의원 보면 칭찬해 주세요 ㅋ 너무 많이 보고싶습니다.그럽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멀라낭게 2008.04.13 03:00

정말 너무 따뜻한 노무현 대통령 각하님..

지난 5년간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뭐랄까 푸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참 속으로는 너무 좋아했는데 표현을 안했지요. 국민들은 분명 알거나 알게 될것이고 후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앞선 정치를 해서 몰랐던것 뿐이지만요. 화이팅^^*...

문화백 2008.04.13 22:09

민주주의 2.0에 대한 머쓱한 제언

2.0이라는 말이 다소 빛바랜 유행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유효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원래 2.0의 정신이 그러하듯이 너무 운영자들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공유'는 법상이 차려진 이후가 아니라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land00 2008.04.14 12:48

노공이산...

그 뜻이 언제쯤 국민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아직도 갈길이 먼듯한데...

대통령님의, 너무나도 우직하고 소탈하심에 하다못해 갑갑한 생각마저 듭니다

갈길이 넘 멀기에....

그냥 스스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는게 더 좋을 듯 하네요

굳이 같이 가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다보면

누군가 또 스스로 가고 있지 않을까요....

지도자김 2008.04.14 17:50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보고싶어서 가끔 언제가면 뵈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나 앞으로 젊은이들이 해야할 일이나... 등등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화팅입니다. ^^v

so~cool 2008.04.14 18:51

이제야 알았네요.....^^

이제야 홈페이지를 찾았네요...^^

간간히 검색창에 올라오는 기사만 보다가 이렇게 회원 가입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집에만 계신건 아닌지....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만났으면 하네요....^^

저 같은 사람이 봉하 마을 까지 가기에는 교통비며 힘드네요.....ㅜㅜ

열심히 돈 모아서 놀러 갈게요....ㅋㅋㅋ

복덩 2008.04.14 20:33

뚝 뚝 뚝!

처음 방문에 이방 저방 둘러보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은 것 같이 기분이 참 좋네요~ 퇴임하신 분들의 활동중 가장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화~팅!

오래된 앨범 2008.04.15 01:11

노 대통령님! 오늘 가입했습니다.

책임기간,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 속에서 대통령님을 바라봤습니다. 퇴임후에, 이토록 멋진모습이 아름다우실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 앞으로 모든 대통령의 귀감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북극성2002 2008.04.15 04:13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노공이산님!!!

어떤이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백성을 위한 원칙과 소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선이라는 산을 옮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노공이산님의 새로운 걸음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희망가득한 사람세상으로 향했으면 좋겠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채이 2008.04.15 08:53

노공이산님 짱이얏!!!!

오늘 가입했습니다. ^^*

어제두 신랑이랑 대통령님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ㅋㅋ
기사를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 ㅋ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와봅니다.
앞으로 이렇게라도 자주 찾아봐야겠네요.
언젠가 신랑이랑 봉하마을가서 먼 발치로나마 뵈겠습니다.
^^* 오늘도 노공이산님 덕에 기분 짱입니다!!!!

[존]노무현[경] 2008.04.15 09:18

보고싶습니다
요즘들어 더욱 그런생각이 나네요.

희연 2008.04.15 09:35

우공이산(愚公移山) 뜻이 맞는지요? 어르신...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가 있습니다. 또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유사한 말

위의 뜻과 같은 말씀이신지요?
^^ 역시 성실,부지런,깔끔,깨끗.. 한 노공이산님이십니다. ^^
'Water will wear away stone.' 입니다. 뜻은 물이 돌을 닳아 없앨수 있다면 뜻의 영국속담하고
잘어울릴것 같기도 합니다.

행복님 2008.04.15 09:50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네요...
노 전대통령님...
요즘 정치를 보면 "희망"이라는 두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압박속에서 다시 뒤로 돌아서 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암담할 뿐이네요...
노대통령님.. 하지만 우리에게엔 희망이 있네요. 당신이 있어서 말입니다.
대통령으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계신 것 아시죠.
오늘도 "희망"이라는 두글자를 국민에게 전해주고 계실 당신을 생각하며 저도 힘이 납니다...

웹피안 2008.04.15 10:16

멋져부러
노대통령님 멋져부러~

취송 2008.04.15 13:12

가입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6-7년전에 님을 알았습니다.
처음 알게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님에대한 실망이나 님에대한 탓을 해본일이없습니다, 왜냐하면 님의 말엔 진실이 있음
을 보았거든요.
드디어 저도 이 멋진 곳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격일입니다.

한국사람인 2008.04.15 14:24

항상 건강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현실정치에 떠나가 계시지만 때론 현직에 계셨을때와 같이 이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정부가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울
곧는 말씀을 서슴치 마시고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사람인 2008.04.15 14:29

너무 초야에 묻혀 사실 연세가 아닌데....
대통령님의 연세가 초야에 묻혀 계시야 할 연세가 아니신데.....이와 같이 훌륭한 분을 위해 대통령을 두번이상(연임이 아니어도
좋으니)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하는데....노무현대통령님 화이팅.....화려한 컴백을 절실히 원합니다...

물그림자 2008.04.15 14:39

아래.. 한국사람인, 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무언가 하실일을 찾으시는 것이 어퍼신지요..
제임기간중 많은 고통속에 지금 좀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하실수 있는 일을 찾아 하시 뵈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푸른빛 2008.04.15 15:26

굉장히 바쁘시네요...^^
대통령님 말씀 중에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인데 무엇을 하면 보내냐고 중요하다는 말씀이 남네요...너무 무리 하지 마시고요...늘 건
강하세요...화이팅 ^^

카라멜카페모카 2008.04.15 15:55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노공이산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공이산님을 아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나눠 주실테니까요~^^
힘내세요

한걸음또한걸음 2008.04.15 18:08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노공이산이 가시는 길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갈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마차
가 다니는 더 크고 넓은 길이 아닌가 합니다.

김아름 2008.04.16 04:57

여전히 바쁘시네요~^^ 휴가라도 편안히 다녀오시길..
여사님께 사랑뽀뽀 주고 받고 하는 행복한 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공이산, 멋지네요.. 지금안되면, 그 다음 데에서라도 계속 산을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평평해지겠지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횃팅.
저는 계속해서 봉하마을 가고싶은거 엄청 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뜸.. 해지면 가려했으나, 인기가 식질 않으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물코렐소 2008.04.17 09:53

휴양 다녀 오시면....
여섯번 째의 소식이 있겠죠?..... 어디 어디 다녀 오셨는지 분명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하늘걷기 2008.04.18 01:48

뭔가가 그리워지는 밤이라 그런지
이리로 오게 됐네요....

손작가 2008.04.18 13:54

노공이산님.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노공이산님의 친근한 말투가
옆에서 들려오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출무정 2008.04.19 16:19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취업 하세요. 노공이산님.

애들엄마 2008.04.23 02:00

노공이산님 사진 보니 눈물이...
오늘 침으로 회원가입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고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
셔서 이제는 맘편히 쉬셔야지 생각하면서도 요즘 이명박 정권이 하는 것들을 보면 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싶습니다.
님이 대통령으로 지내셨던 세월이 아득하고 꿈만 같습니다.

참주인 2008.04.23 14:16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서민적이고 소탈하신 노공이산님의 모습에 늘 가슴이 따뜻해져 옴을 느낍니다. 재임기간 전에서 부터 존경해왔는데 역시 퇴임이후
에도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청와대 계시던 시절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립습니다. 노이공산 님 화이팅!!!

가과치 2008.04.23 21:32

건강하십시오
노공이산님 갑자기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바랍니다

사랑들행복세스콘 2008.04.24 14:37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협객둘리 2008.04.24 19:53

항상 건강하십시오.
요즘 노무현전대통령님이 더욱 더 그리워 집니다..

고리아이 2008.04.24 21:23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운 바보
노.무.현.

다시출발 2008.04.25 15:42

ㅌㅌ
요즘 이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참 슬퍼서 눈물이 나려고합니다. 다시 한번 안되시지요? 가슴속 울분을 토하고 싶어도 토하지 못하고
고 그저 답답하기만 하네요,,,,, 힘드시겠죠? 다시 한번은?

song1 2008.04.25 18:52

늘 건강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또 분열될려고 하네요.....서글롭니다....

직전단풍 2008.04.25 20:21

그립습니다.
뉴스 보는 것이 , 읽는 것이 무섭습니다.
새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희망을 가슴에 심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공이산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만우절특사 2008.04.25 23:56

안녕하십니까? 정동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 치질 때문에 수술하고 사시 공부하느라고 너무나도 바빴습
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후 1시까지 강의듣고 시험 보고 그러느라고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리느라고 너무나도 바빴습
니다. 그리고 치질로 인한 고통으로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편지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봉하
에 갔었을 때는 비가 와서 각하를 만나뵙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각하께서 나올 시간을 미리 계시해놓아서 그에 맞추어서 사람들
이 각하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국내 사정입니다. 이제 불체자들이 한국인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으며 광우병이 수입되어 이제 국민들이 2010년부터(잠복기가 가장 빠른 것이 3년이라고 합니다)는 국
민들이 죽어 나갈 것이며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하게 되면 광우병 치료(지금 광우병 치료법이 개발되지도 않았지만)를 못받아
서 죽어가는 국민들로 각 아파트는 광우병으로 죽어가는 국민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체자들이 한국인들을 밀어내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밤거리를 여자들이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될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광우병은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라면 스프, 감기 알약 캡슐, 과자, 육수, 소세지 등등 모든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차이나 타운 그리고 중고생 강간하는 이슬람 국가 불체자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 제 폐지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광우병이나 감기가 들어도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밖에 없고 병원은 돈되는 환자들만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국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저도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하지 말자고 의견을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냈지만 그것은 무시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자야 할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글을 쓰기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만우절특사 2008.04.25 23:57

안녕하십니까? 정동원입니다(앞글이 너무 길어서 다시 이어서 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다른 분의 글을 보니 한국인의 의식이 일본인만큼이라도 향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광우병에 걸리고 불체자에게 살인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생당하고 살처분될 뿐이고 의식을 향상시킨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의식 향상을 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95%는 아는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는 95% 살처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살처분 방식이 전쟁, 지진, 전염병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테스트는 우리의 의식 향상입니다. 이번 선거를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 로또심리로 찍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우리의 의식으로는 살처분 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 각 사람을 붙잡고 강연을 하고 직접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할 것인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 남은 것은 청소 즉, 자격 안되는 것(사람)들은 살처분 시키고 자격 되시는 분들로 새세상을 꾸려 나가자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무 못된 돈 만능주의 사상에 찌든 중국인의 DNA가 전쟁과 강간을 통해서 한국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은 일본인의 그것보다는 더 낫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일본인이 대학생이면 한국은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95% 전원이 살처분되게 생겼습니다. 닭, 돼지, 소, 그 다음에는 인간 살처분입니다. 인간이 언제까지는 열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국인 각자 를 붙잡고 개인 교육을 할 시간도 그러한 여러 개의 분신으로 만드는 변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대한민국구국 2008.04.26 00:48

너무멋져용
^^ 멋지십니다. 그냥 지금모습이 너무 보기좋으십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국민과 더 가까워 진 것 같으셔서 너무 좋은거 같네요^^^

묵언하심 2008.04.26 17:09

안녕하세요? 도호기 입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벤처회사 대표이사도 하고 케이블TV대표이사도 하며 지내오다가 지금은 고향에서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며 소일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기도하는 모토크로스경기를 국내에서 개최해보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아직 길길이 많이 멀기만 하네요. 제블로그 <http://blog.daum.net/motocross> 에도 들려주시길 빌며이만마칩니다.

나도주부 2008.04.26 18:37

꼭 한번 뵈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카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5년동안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지나보니 알겠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우리국민을 생각하셨단 본인걸..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진이 2008.04.27 21:09

멋진분
안녕하세요~ 노무현대통령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대통령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밝고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

햇별 2008.04.28 00:35

노무현 화이팅
요즘 자주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이렇게 알찬 말년을 보내고 계신분이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퇴임후도 바쁜일정이시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

홀로서서 2008.04.28 12:56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좋은 분이 그리고 현명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 은퇴 비슷한거 해서 시골에만 계시니 아쉬워요~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역사가 좋은 평가 해줄거라 믿습니다.

BOSS 2008.04.28 14:07

아이들과 함께 꼭 봐러 갈게요.
꼭꼭~~

자연방랑자 노무현 2008.04.28 15:01

당신의모습이...이렇게 좋을줄 몰랐습니다
정말 보기좋은모습입니다,..
이젠,,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합니다
대운하,,의료보험민영화,쇠고기협상등등의
비굴한 타협에의한 정치,,
더 이상보기싫어졌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주세요,..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정말로요.,

나르시스74 2008.04.28 19:42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날 잡아서 아이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분이 아빠가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야" 라고

아이에게 자랑할꺼예요~~

건강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람좋은 웃음이 유난히 그리운 이밤입니다..

무현영원 2008.04.30 14:09

뽀고싶습니다^^*
항상 임기중에도 생각하였지만 너무인간적이어서
그렇지못한사람들한테 많은 좋지못한 대우받으시면서도
잘하셨습니다.지금의 무현님이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앙마광순 2008.04.30 16:18

이젠 50000번째 글이 올라올텐데^^
하루에 1만건에 글이 올라오는 추세가아닐까요^^ ㅎㅎ

타이탄 2008.04.30 19:27

존경합니다
너무그립습니다..지역은 멀지만 최대한 이른시기에 봉하마을에 방문하고싶습니다..

그대가있어 2008.05.01 00:19

그대가 있어...나에겐 컴퓨터와 같습니다
세상이 싫어지려 할 때 잠시 이곳에서 마음의 숨을 고르고 갑니다.
당신이 있어 가능한 일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어줘서.....

불초 2008.05.01 10:11

요즈음 당신 모습이
더욱 때 아름답다.
컴 앞에서 지친 말과 손가락 때문에...

주촌 2008.05.01 13:37

존경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싶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동참 하겠습니다.
조만간 밥상지기를 동반하고 봉하마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독재자 2008.05.01 14:12

좋아보이시네요...
더욱 좋아보이세요. 그리고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할 때 대통령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이가 노무현이라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더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아주세요.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이가 더욱 많아져 새로운 역사적 가치로 존경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실장 2008.05.01 18:44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가입하고 바로 첫 댓글을 씁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현대통령 뽑았던사람들은 나몰라라합니
다. 한탄스럽습니다.

쿠이즐 2008.05.01 21:36

너무 그립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안되나요?

예뻐이맘 2008.05.01 22:36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흐름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타협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모든 걸 다시 닫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지킬것은지켜야한다 2008.05.02 00:09

노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돌아와주세요..
요즘은 정말 뉴스보고 있으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노대통령그늘에 살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요즘은 뭐 하나 보고 있자니 너
무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노대통령께서 나랏일 봐주시때는 솔직히 티비도 거의 안 봤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으니 굳이 열대가면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티비 컴퓨터 꺼안고 삽니다.
그립습니다.돌아와주세요..

광창 2008.05.02 13:46

건강하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오랫만에 쓰신글을 읽었습니다.
역시나 같은 모습이지군요...보기 좋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여러가지 글을 보고 돌아가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또 오겠습니다.

수련사랑 2008.05.02 14:03

정말 그립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T.T

유람 2008.05.03 03:58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최고기 관련 뉴스를 보다가 들어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네요.

건강하십시오.

노스트라다무현 2008.05.03 04:43

안녕하세요
그럽습니다.....이젠 살맛이 안나요 TTT

비가와도꽃은피고 2008.05.03 06:01

노무현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지금 온나라가 들 끓고 있습니다.. 광우병 소 수입문제도 그렇고 .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등등
..국가의 원로로서 제발 우리 국민을 도와주세요

open mind 2008.05.03 12:46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힘이고 희망입니다.
가끔 보도되는 대통령님의 근황에 신선함과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느낌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생각에...^^ 늘 건강하십시오...쉬엄쉬엄 하시면서요...

다사 2008.05.03 15:36

잘 지내세요^^
혹, 다시 대선에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지...
요사이 캐나다 이민을 알아보고있는데,
좀 붙잡아주세요 --;

민들레소녀 2008.05.03 15:43

사람 냄새 나는 봉하마을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엘즈미어 2008.05.03 16:41

노공이산..
그러다 병나실까 걱정 됩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산이 커질리는 없지 않겠습니까??ㅋ

구피엄마 2008.05.04 13:06

노무현... 그 이름만으로 눈물이 날라 합니다.
어제 다크 3일 프로그램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강원사랑 2008.05.04 13:53

책임은.....
사람에 대한, 보다 정확한 말로는 그 사람의 일이나 공과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지금의 답답한 마음이 모조록 시간이 지나서는 쓸데 없는 기우로 기억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다가올 폭
풍의 시작에 불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란, 어떤 자리에 있을때만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달이 2008.05.04 16:25

정계에 노무현 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지금 하는꼴을 보니, 정말 국민들 두통이 생깁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정말존경해요! 2008.05.04 18:16

TT다시돌아와주세요..
다시 돌아와주세요..간절하신거 보시면알겠죠..
정말 죄송했습니다..정말루..다시돌아와서
그 힘을 보여주세요..

오토마이 2008.05.04 20:26

존경합니다
.....

오바다 2008.05.04 21:31

탄핵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자 수가 1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침묵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살림!

활짝웃으며 2008.05.04 22:39

인자하신 말투가 글귀에 묻어나네요.
항상 말씀하시는 톤이 글에서도 묻어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는게 참으로 신기하고 기분 좋
을 따름입니다. 제 글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나라의 장이셨던 한분에게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게 너무 좋습니다.

mynameisRED 2008.05.05 01:44

총체적 난국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요..
이나라에서 뭔가 한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샤방샤방77 2008.05.05 05:03

죄송합니다....
고향에 가시면 쉬시는줄로 알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게 아닌지요.
현직에 계실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하세요...

현명한노빠 2008.05.05 07:27

그럽습니다. 우리 노형^^

여기 글 들 보니, 영상 보니. 울컥해지는게..... 건강도 챙기시고, 인기관리도 잘 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뽕상 2008.05.05 12:04

노무현 대통령님
님아 돌아 오셔용 TT TT TT TT 내 죽기 싫음

스물파이 2008.05.05 14:12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님. 정말 그리고 죄송하고..감사했다는 마음..뿐입니다.그러나, 이제 임기 마친 전직대통령의 입장으로써...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앞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치가. 전직대통령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에게 행복한 길을 택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간지 2008.05.05 20:00

보고싶습니다.
대통령하시면서...너무 시달리셔서 정책이야기는 하기도싫으시겠네요 ㅎ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님 당신이 보고싶습니다.

poiloi 2008.05.05 21:32

봉하마을
꼭한 번 들러볼게요

보수주의자 2008.05.05 22:49

처음와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 시끄러워요... 알고계시죠?... 주일대사관 홈페이지 가보고.. 한숨짓다가...답답한 마음에 처음 여기 들렀습니다...보고싶습니다...

뜸새 2008.05.06 00:38

내 마음에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둘 수 있어 행복합니다. 노공이산께서 쌓아오신 저 높은 산 옆에서 저도 산을 쌓고 있습니다. 산의 높이가 당신의 높이와 엇비슷해지면 저도 "노대통령님 나와주세요."라고 외치겠습니다. 꼭 외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집시6163 2008.05.06 16:51

허가받은 휴가를 맘껏 누리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뇌들과 씨름하셨습니까?
이젠 나라가 허가한 휴가를 맘껏 누리십시오
노공이산님은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몽인 2008.05.07 12:01

종와 보이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근황한번 보려구요.
이렇게 가까이 접할수있는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구 종와 보여서 좋습니다.

예쁜딸 2008.05.07 17:59

최고입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모습이 최고입니다 힘들게 지켜내신 최고기타협안 어떡할까요 그뻔물랐습니다 얼마나 최고였는지

하마별시* 2008.05.07 22:03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님.
당신은 제게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꼬망 2008.05.09 07:24

대통령님 보고싶어요!!!
정말정말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청풍명월 2008.05.09 10:46

노무현 대통령님 많이 그립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답답하기만 한지....게임중에도 노무현대통령님의 지지자였던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그당시에 겪으셨던 일들에 많이 분개했었더랬습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정국에 뒤늦게나마 노무현대통령님의 진가를 깨달아가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가는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이었던 노무현님이 정말 그립고 많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해피베리 2008.05.09 11:49

건강이 걱정됩니다.
봉하마을가서 찾아뵙고 싶은데...찾아뵙는것도 죄송스러울거 같네요. 매일 저렇게 방문객 맞으신다니...몸도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영원한노사모3 2008.05.09 14:10

63년 역사에서 님의 당당함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님은 대한민국 63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며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대통령 이십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2000년대를 평가할 때 님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실 것 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윤범혜인아빠 2008.05.09 18:07

전에는 좋아하는 이유를 뚜렷이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지면 밝음이 더욱 또렷해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봉하리에서든 인간다움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일관성있게 실천하시는 마음이 이제 제 눈에도 확연히 보이는군요. 저는 가까이서 겸허한 '우(노)공이산'의 본을 갖게되어 행복합니다.

lsr25x 2008.05.10 15:53

언제나 저는 노짱님의 팬입니다.
왜냐하면 님은 변하지 않는 겸손함과 진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넘겨서 다시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집시6163 2008.05.10 22:44

노공이산님!! 다음 답글 곧 올려 주실거죠?
50,000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답글 빨랑 읽고 싶답니다

나름노사모 2008.05.11 01:40

베스트 뷰를 '추천 글'로 바꾸는 센스~!
(사실 저 센스의 적당한 우리말을 못찾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부려요

필마단기 2008.05.12 12:57

그립네요...
노공이산... 필명 멋지내여. 덕분에 저도 가입하면서 필명하나 지었습니다. 노공께서 서울 계실때가 그립습니다. 그래도 미친소에 대한 걱정은 안했으니까요. 부디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한번 국민의 한가운데에 서주셔서 국민을 지켜주세요

비너스부인 2008.05.16 20:23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노무현 대통령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저도 그립습니다.

코난과포비 2008.05.17 14:59

꼭 한번 뵈러가고싶습니다.
요즘들어 노대통령이 더욱 그리워 지내요..건강하시구요

country_lady 2008.05.18 14:50

영광입니다.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봉하마을에 가면
대통령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봉하마을은 이름도 예쁜 곳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 님의 모습에 존경하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Marine Boy 2008.05.18 17:53

한번 찾아가 뵈기를 바랍니다.
조만간...사람 향기 맡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

당신을존경해요 2008.05.19 08:44

당신이 너무도 그리워집니다.
일단 건강하셔야만 하구요
노짱님 정말 당신을 존경 합니다.
그리구 너무 사랑 한답니다. ^^

어진맘 2008.05.20 17:39

가슴이 몽클하여 글 남깁니다.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가독담아 주신 노공이산^^님의 글이 저를 몽클하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훗날 봉하마을 먼 발치에서라도 꼭 뵈기를 희망합니다

노짱님노짱님 2008.05.21 15:46

노짱님노짱님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편지도 읽을수 있고 글도 남길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 글도 보실수 있으시겠지요...??
글 읽으면서 노짱님 목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
저도 언제 봉하마을에 가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많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노짱님의 편지 또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commons 2008.05.23 12:36

노짱님 쉬세요.
이젠 노짱님 대신. 노짱님의 정신과 마음을 담은 시스템(?)으로 방문한 분들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짱님은 쉬시면서 우리 역사의 큰 맥을 짚어 주세요. 그리고 그 맥락을 우리가 토론하도록 연계고 이렇게 공개해 주시구요. 죄송하지만 노짱님 아직은 노짱님만이 하셔야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Induky 2008.05.23 23:34

노공이산 아주 훌륭한 필명입니다.
그야말로 노무현님의 행적, 그리고 현재의 행보를 비추어보면
가장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노무현님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요.
호호.. 이거 너무 티나는 발언인가요 ㅎㅎ

idenia 2008.05.24 00:32

오.. 노공이산^^
어울립니다^^ 필명^^

나의별님 2008.05.27 05:52

노공이산
늪은 공신이 산을 옮긴다.. 뜻인가요..

여수갈매기 2008.05.28 12:43

보고싶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무심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봉하마을도 비가 많이 왔겠죠. 건강은 어떠하신지.....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게 사시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 챙기세요.....

로미55 2008.05.28 13:20

보고 싶습니다.
몇번을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합니다. 이제 다시 쓰려니 한숨만 나오네요.
담화, 광화문, 광우병, 중고생 강제 연행, 남대문 경찰서장
예구..
별고 없이 시저?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추신 : 노공이산 - 님 멋있습니다.

작은태양 2008.05.29 18:06

너무 너무 보고싶습니다.
노무현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입니다. 보고싶습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꼭 버려 갈게요... 건강하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당신이 아닌 우리의 당신입니다...

제즈매니아 2008.05.30 00:49

그립습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오실수는 없지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얀님 2008.05.30 20:25

권양숙영부인님이 젤 부러워요.
이렇게 멋진 분을 날마다 볼 수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왔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노짱님 글만 읽고 있어도 눈물이 한사발이네요..
어찌나요?? 그 짝사랑. 모두들 그렇지요?

노짱님과 함께한 지난 5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리라
간절한 기다림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쁘미 2008.05.31 09:07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영상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언제나 소신과 신념을 꿋꿋이 이어가고자 했던 분...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바랬던 분...
진실을 너무 많이 외면당하고 가슴아팠을 분...
너무나 그리운...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분...

하지만 노대통령님...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머가면지당최 2008.06.01 00:08

호.....저에게 처음으로...
저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었죠...
집에서 서로 티격 태격 한것도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당신을 믿었고, 아버지는 정몽준...ㅋㅋㅋ
서로 알수 없는 벽이 생겼지만 전 당신을 응원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승리 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건강한 모습보니 제 가슴이 한없이 벅차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젠가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행복한꿈 2008.06.01 02:55

^^ 잘 계시지요.. 너무 뵙고 싶네요...
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때 전 입을 다물었었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젠 노짱님이 자랑 스티입니다..
TV에 안나오시니.. 찾아가서 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백반대 시위에 유도차에 얹어있던 아들이 많이 커서 좀 있으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 겸 찾아 뵙겠습니다. ^^
건강히.. 계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dragonyke 2008.06.01 03:46

그립습니다!!
걱정스런 맘에 이시간까지 이런 저런 기사를 보고있는데 아고라에 이해훈이라는 국회의원이 중부세 완화 법안을 밤새 준비해서
18대 국회1호로 상정했다는 글을 보고 덜덜 떨고 있는데 노통령님께서 한 초등학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사진이 아고라화면 한켠
에 있어서 클릭을 해서 본 순간 눈물이 나더라구요..너무 그립습니다! 대한민국의 참여정부 시절이...

선계비블 2008.06.01 11:04

떼를 쓰려고...
찾아 왔는데...

묵묵히 기다리시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저 지금 계시는 그대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블랑곰돌 2008.06.01 15:30

노장님~~님 보고파요
정말 요즈음 당신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부산아낙 2008.06.01 21:33

저도 할래요.....
말이 안되는 소리인거 다 압니다...제가 필명까지는 가지지 못하지만....여기에서
제 억지로...요즘 뜨는 드라마 이산이 떠 올랐는데...이산도 노무현님 모습과
닮은 듯 해서요...제가 양씨 인지라...양공송연으로다가.....푸하하하;;

려니 2008.06.03 04:51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납니다. 보고싶습니다T
너무 보고싶습니다.

강목수 2008.06.03 12:21

얼굴 한번 보는게 정말 힘들군요^^ 전 한번도 실제로 빈적이 없어서 ^^
김해에 살면서도 봉하 마을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지만 마음만은 매일 가봅니다.

이크맨 2008.06.03 13:21

정말 큰산을 옮기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갈수록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어찌든 민주주의 2.0기대하겠습니다.

태공망 2008.06.04 06:08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기회가된다면 반드시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체리코크 2008.06.04 14:59

있을때 잘해란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제손에 권력이 얼마나 근사한지 손에서 내려놓고 난뒤 깨닫게 되나 봅니다..

전17대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님께 제 한표를 행사하고도...사람들이 대통령님을 맞출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휩쓸려 말한적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제가 살아가며 후회하는 일중에 하나랍니다..

있을때 잘할걸..하는 생각 저말고도 여러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여기 대구에서 기◆

찬우찬호 2008.06.04 16:59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면
미국의 지미카터 전대통령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일이 참아름답게 느껴 집니다. 모든 대통령 출신이신분들이 좀 보고 느끼시길...
두내외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솔베이지 2008.06.04 20:21

왜 더이상 글이 없나요?
바쁘신가요? 아님 시절이 하수상하여 말을 아끼시는 건가요? 꼭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도 살아 가는 모습 넘님 궁금해요~유기농 오
리농사 지으실꺼란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어디서 왔나요? 봉하장날에?^^암튼 인자한 미소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네요...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ㅠ.ㅠ^^

로마 2008.06.05 16:27

컴백은 안될까요?
누구나 하는 생각일지 또는 부질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맘이 드네요 ^^
하지만 분명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잠실몽크 2008.06.06 13:27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오늘 가입했습니다 ~ 가입 축하해주는거죠?

장군차 마실 수 있을때가 되면 전체 공지 꼭 부탁드립니다. ^^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양양이 2008.06.08 00:50

사랑해요.보고싶어요.그리워요.그리고.. 행복하세요.
잘 지내는 모습보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모습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요즘들어 더 그립니다.
그럴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지네요..
행복해 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네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니깐 눈물이 나오...ㅠㅠㅠ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봉하마을에서 행복하고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싶습니다..ㅠㅠㅠ

청산명월 2008.06.12 03:35

당신이 그립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세상의 원칙이 무너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권위가 판을치고 수없이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도 메아리가 없네요. 10일엔 촛불집회에 갔었는데 막 눈물이 나더군요. 이 나라의 살아있는 수많은 양심들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광란의질주 2008.06.12 15:57

다시.. 뵙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어지러운 시국... 노무현전대통령이 무척이나 그립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재임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휴~~ 님답답하니 아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민권맘 2008.06.14 20:17

가슴터지게 그리운 노친네
나이 서른중반에 애 들 딸리고 고달픈 돈벌이 하다보니
눈물짜내는 드라마나 다큐못본지 오래입니다.
근데 우리집 사이에 애아버지가 노친네의 영상을 올려놓았지 뭐니까..
가슴터지게 사무치게 노친네가 보고싶어 평평 울었습니다. 애들이 보든지 말든지..

미래지향 2008.06.14 21:03

기대됩니다.
노무현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뭔가 이루어줄것 같은 기대감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곳에 들려 그 기대감을 충족해 봅니다.
어제도 왔으니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려고합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하루이시길 바랍니다.

대륙 2008.06.16 22:47

점심도 차도 ...
한 잔 못주시는 맘을 알기에 메기탕이나 쇠고기국밥으로 대신하려고요.
하루면 몇번씩 손을 흔들어보이시는 모습이 힘드실 줄 알면서,
널 또 대통령님 비려 갈 겁니다. 그저 바라 볼 수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다녀 갈 겁니다.
들 뜬 마음으로 밤을 지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짜~~~아^^^

진실의 천사 2008.06.20 10:01

임기중에, 남들은 나를 노빠라고 했었죠..
서초에서, 주위엔 온통 한나라당지지자들속에서... 남들이 당신을 비판할때, 저는 역사적 흐름을 이야기 하며 당신이 그런 정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말했죠. "너는 노빠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정책에 대해 실망도 많이 하고 비판을 인정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노빠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41살인 내 눈가에 캔시리 눈물이 젖었네요. 눈물이 이제 거의 마를 나이도 됐는데....

창밖엔 2008.06.25 14:38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기준
우리나라에 대통령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신 노대통령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노대통령의 재임기간이 안타깝고 그립지만, 이제 또다른 노대통령을 기다립니다.

노스텔지아 2008.06.25 17:23

불타오르는 촛불만큼이나 밀려오는 향수.. 노(盧)스텔지아..
저도 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노(盧)스텔지아'로 하려고 했는데, 선점한 임자가 있어서 '노(盧)스텔지아'로 밀렸습니다

천국간손년 2008.06.30 01:09

저..솔직히 노짱님 글 오늘 참 읽었습니다..
짧은 글속에서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이제 이곳에 자주 올 것 같네요..^^

봉급쟁이 2008.06.30 10:48

보고싶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대통령님 시절이 좋았던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쏘우와와 2008.06.30 23:23

세상사
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진실함과 믿음 느낄수가 있어 좋네요
세상사 진실과 믿음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껴서 기분이 좋았어요
참 구수함도 느껴지구요 ㅎㅎ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노대통령님 같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가 하고 꿈씌어 보고 갑니다늘 건강하세요

이천년 2008.07.01 15:16

요즘 몸이 안좋은신지?
요즘에는 잘 안오시는듯 보입니다!! 혹여 몸이 안좋은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꼭 건강하세요!!!

낙엽지는새 2008.07.02 22:53

노공이산..좋네요 ^^
한글 한글 읽어나갈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우리나라 한글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 읽기만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
많이 바쁘고 골치아프시겠지만 민주주의2.0 진두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
더위 조심하세요~ ♡

계보린 2008.07.03 19:23

노무현 전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처음 와서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연일 일도 잘 잡히지 않고 걱정근심만 늘어갑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고나서 민주주의는 많이도 후퇴하고 있네요.
그래도 역대 정권 중 노무현대통령님이 세웠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웹 2.0 내용은 잘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많은 담론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2008.07.05 01:39

노무현 현대통령님 제 글 꼭 읽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 말 말고 구구절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10줄 이상을 써내려가다

모두 지우고 이 말 한마디만 더 적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ㅠ ㅠ

matee 2008.07.07 19:31

좋아~~.정말 직접쓴글 보니 좋네요.ㅎ
가끔씩 드르겠습니다당.~ㅋ

짱지 2008.07.09 00:32

노공이산 좋은데요~
저도 그 산 옮기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어요

korsakoff 2008.07.15 15:39

마지막 추신에 즐겁게 깔깔거립니다.
휴가때는 좀 쉬시면서 재충전도 하시길~

엘레강스탑 2008.07.18 22:54

꿈에서 본 대통령...
당선되시고 얼마 지나지않아 꿈에서 뵈었네요. 자판기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뽑아서 주시더라구요...'아...이건 무슨 꿈이지?...'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오늘 처음 눈팅만하다가 용기내어 들어와봅니다. 가슴이 저러오고 또 다시 희망을 느끼는건...현실에서 존경할 수있는 분이 생겼다는겁니다. 그리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행복가족 2008.07.19 03:33

3월 편지 이후 님 오래 기다리네요... 여러분~ 서명해 주세요~ 클릭강추!!! (후회없어요~^^)
[의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13>&연임제는 물론 중임제의 개헌이라도 이명박부터 적용된다면! 이걸 정말 아니다! 만일이전 대통령들은 모두무시하고 現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이상한논리로 전직 대통령들의 대권 재도전을 막으려 한다 면??? < 해결방법은... "전직대통령 대권 재도전가능개헌발의" 이슈청원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13>&부탁드려요~! 국민의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청와대로

라세라 2008.07.22 11:41

요즘 신문보기 싫습니다 특히 중앙~-- 정말 마음두 아픕니다...힘내세요~ 늘 건강챙기시구요~
아침 노공이산님 곁에서 늘 함께하시며 고생하시는 여러분두 힘내세요~^^

옵티라이더 2008.07.23 00:02

가입기념..
맨날 구경만하다가 첨으로 글을 올립니다..... 건강하게 잘계시죠? 히히~~오늘 썰매타시는 사진 인터넷 강타했습니다.....사랑합니다..대통령님!!

파랑나비현이 2008.07.23 11:12

아~~~~~다시뵈고싶습니다...
아고라에 서명 바로 하고 왔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 오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을 담아서 서명하구 왔답니다~~~
세상 살기가 점점 무서워 지네여~~ㅠ.ㅠ

정담 2008.07.26 13:33

노공이산님
너무 보고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노랑시민 2008.07.27 21:00

노공이산 맘에 들어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고하세요~!
민주주의2.0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ㅋㅋㅋ
더위 조심하시고 좀 쉬면서 재충전(?)도 좀하세요!!~ ♥

상협의 청운 2008.08.05 00:20

노공이산님 안녕하세요...지난주 아이들이랑 봉하마을 들렀는데 휴가중이라 못뵈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생가랑 사저랑 보는것으로 만족해야 했지요..둘째와 셋째아이들 마누라가 업고 나는 안고 투표장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군요. 다음에 아이들이랑 다시 한번 들러겠습니다...내내 건강하세요...

덴디맨 2008.08.05 16:47

노공이산이라. 딱 어울리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이희빈 2008.08.07 20:07

노공이산 님께서 꼭 본인이 블로그를 한 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

그리고 이 동영상도 한 번 보시구요!

<http://cafe.daum.net/kokoin/7sSW/117>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마추어의 입장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은 역대 부자되고

나라 지키느라 목숨 바친 사람들은

집도 없고 이게 뭐니까??

뜻을 함께 하실 분들에게서는 서명하여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17&>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은색불꽃 2008.08.10 22:25

노 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개설 직후 아이디만 만들고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왠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거실에선 올림픽중계가 한창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곳에서 의견을 나누시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참 좋아요.

예전부터 봉하마을에 한 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마음만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침 이번 주말을 끼고 15~18일에 쉬게 되어서 적당한 여행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찾아가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더라도 만나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하..

일정 란에는 지난 일정만 표기를 하시나요?
회원게시판이나 다른 카페 적당히 눈팅해서 최대한 알아봐야겠네요.
뭐 꼭 뵈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가면 되니까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먼 곳에 계시지만 나라와 국민들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모두들 힘든 시기 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저는 주말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빠비 2008.08.12 15:24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뉴라이트처단자 2008.08.18 23:57

안녕하세요!이제야 인사 올립니다.제 별명 저도 맘에 안듭니다.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뉴라이트 만큼은 진짜 싫습니다.노무현대통령님!
항상 현명하게 하실걸 굳게 믿습니다!구벽

삶의열정 2008.09.06 01:42

대통령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아세요?3만번째 글이 가까워진다고 쓰셨는데, 이제 10만번째 글이 돌파되었답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간은 흘러흘러가고..

대통령님이 퇴임하실 때 정말 기도드렸습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바르게 평가할 날이 올거라고... 그런데 그날이 정말 빨리 왔네요. 모두들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너무도 빨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62번째 생신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가림맘 2008.09.06 22:08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5년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럽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셔야 해요..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음악사 2008.09.19 09:57

항상 맘에 두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이트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진실을 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전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 사용실천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말씀중에 '베스트 뷰' 보다는 '추천글' 이 좋겠다고 하신 점. 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한글 사용을 하자고 하신 것으로 하신 말씀 같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오랜 사대주의 문화로 인해 한자나, 영어를 써야 멋져보인다는 아주 위험한 인식이 내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루 하루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영어 간판들, 길거리, 인쇄물, 관공서, 어디서나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영어 단어들, 심지어 대기업,은행,공적인 기업들까지 이전에 잘 썼던 한글회사명들을 달리기라도 하듯, 영문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전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 열풍 및 영어교육에 미친 탓이기도 너무 자명한 사실이구요, 나라와 민족 정신교육 보다는 그저 이땅에 살면서도 이땅에 감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만을 위한 교육에 미쳐 같이 뒤엉켜 돌아가는 이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에서 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유지하시구요 생각하시는대로 다 이루시기

2.0

바랍니다.

발가락쪽 2008.09.19 14:00

노공이산님 화이팅!!!! 킹왕짱이십니다 ㅎㅎㅎㅎㅎㅎ 건강하세요 ^^

푸울립 2008.09.20 11:47

노무현 대통령님때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는 듯 해서..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절망하지는 않으렵니다~ 노통님 말처럼..강물이 굽이쳐 흐를때도 있는것처럼..지금은 심한 굴곡을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렵니다~~

당신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였으며,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당파와 지역주의을 뛰어넘은.. 진정 국익을 생각한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진정 그리운 요즘입니다.

별이★ 2008.09.20 13:10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눈물나게 보고 싶습니다 TTT

우드티 2008.09.23 14:38

당선 되셨을때 출장이어서 투표하고 아침에 운전하고 간 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 함 봉화에 가서 뵈고 싶습니다..

펙킨 2008.10.10 08:28

노공이산 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1000명의 사람을 위한것이라면

글을 한번써서 올려주시는 것은 10만명의 사람을 위한것이 됩니다.

어느 한사람의 말과 글이 다른 여러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사람이라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일기쓰듯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렸으니 저는 매일 노공이산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 방송에서 보면 피부도 거칠고 주름도 느셨고.머리도.....

노력하는자 2008.10.10 15:46

정말 남자 정말 멋진 짱의 기질을 갖구 계신분 요즘 상황보면 너무 그립네요

ninano2002 2008.10.15 22:42

당신같은 분이 대통령이었던 나라에 살고 있는게 행복합니다.

위인전에서만 나오는 위인이 아닌, 한순간의 모습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오랜 시간동안 꾸준한 모습에 존경을 받는...

그런 당신이 그립습니다.

노무현.

그 이름 세글자가... 눈물 나도록... T.T

푸른빛 2008.10.20 00:40

멀리 가서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늘 먼곳에서 영원히 지지하고 존경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평민2 2008.10.20 16:05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 이땅의 정치가 잘되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노공이산님의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벽은 왜 이렇게 두터운지요?

부달큰타이거 2008.10.29 19:11

한번더 나라를 이끌어주시시오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십시오.....ㅋㅋㅋㅋㅋ 못다이룬 개혁 임무 완수하셔야지요^^ ㅎㅎㅎ

HWINDCO 2008.11.16 03:17

너는대한민국의공공의적이야나본인가아 편가르기로 지배속만디록디록

HWINDCO 2008.11.16 03:21

경제의;기본도물리고밝갱이속성만 남은자유주의의기분을 갈아 순국선열의 정신을 을가먹은 잡종 마누라공산당만살려준판푼

천하주유 2008.11.16 09:00

노공이산이라... 노- 노력하고 노력하고 피땀흘려노력하고 공- 공부하고 공부하고 독학하고 이- 이세상을 아름답게하기위하여 태어난분 산-산처럼 넓은마음으로 우리를 껴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입인사 올립니다)

넌 몰라 2008.11.22 17:58

가을의 싸늘함 좋은 인연 대상.회사원,유부녀 등등 이뿐이들 평범한 일반생화에서

만남을 즐겨보세요 외롭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세상 누군가 같이 하고 싶다면

www.seklove.com 좋은 인연 좋은 애인 만날수 있습니다.

풀잎인들 2008.11.27 21:30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역사에 길이 남으실겁니다.

성군 이셋기에...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사랑합니다.

돌틈바위 2008.12.05 23:29

아들들에 딸하나를 둔 가장 입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렵지만 힘들때는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언젠부터인가 몸에 배었습니다, 백전노장의 힘찬 목소리는 피를 뜨겁게 만들었고 의욕이 넘치게 만들기 때문이니다, 딱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죽기전에 그런날이 온다면 제 평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대통령님의 모습,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불-잉걸 2008.12.22 18:52

봉하마을 함 가고보 와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얼마전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의 32년을 제대로 못살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는게 힘들어서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전보다는 뜸하지만, 노 대통령의 소식 들을때마다 항상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노공이산님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공조사 2009.02.21 11:45

노공이산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책임기간이 자꾸만 그립습니다.

유계용 2009.02.24 13:04

몇일전 대한민국의 큰 촛불이 꺼졌습니다. 인자하시고, 숭고하신 김수환추기경님께서 가장 암울한 시절에 세상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애도속에서 그분은 다시 촛불을 켜셨습니다. 미약하다고 할수 있지만 우리네 가슴속에 훌륭한 분을 알고 느낄수 있다는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담게서 청와대에 게실때 기대와 요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마음이 아픉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중한것을 잃은 후에야 깨닫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세상의진실 2009.04.07 21:03

노공은 밀도 끝도 없는 욕을 들으면서도 항상 국민들 걱정 뿐이었는데 어떤 쥐는 밀도 끝도 없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지껄여대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 1%의 국민들은 잘 챙기는 건 인정 - 자신들의 세력의 안위와 이득만을 위해 죄없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인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opener 2009.04.09 00:02

사랑합니다

싱그러움을 하늘에 2009.04.09 12:59

사랑합니다 2

도미니칸 2009.04.21 17:21

사랑합니다 3

산짐승 2009.04.28 09:37

노공이산... 사행시를 지어보세요..
노"
노시는줄 알았더니
공"
공부도 잘하시고...
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
산"
산이 아무리 높아도 노무현 마음만 할까...
. . .
ㅎㅎ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미소 2009.04.29 16:58

다시 글로 인사드리고 근황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창살없는 감옥이라뇨..너무 마음이 아픉니다...!!!!

신길동맘 2009.05.05 12:00

사랑합니다.♡

노쟁어페이 2009.05.23 21:57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였다고...

꼬마빛 2009.05.23 23:58

노공이산 대통령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2009.05.24 00:01

어디서 뵈 수 없나요? ㅠ ㅠ 노공이산님..

노무현대통령님이쨌. 2009.05.24 07:47

노공이산님 ... 생전 꼭 보고 싶습니다.

dali12 2009.05.24 11:53

정말 사람냄새 나는 대통령이시네요 TT TT
왜 진작에 여기에 올 생각을 못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TT TT
정말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신것 같아요..글하나하나 마음에 넘 와닿고
눈물이 납니다 TT TT 정말 보고싶습니다 TT TT

우철아빠 2009.05.25 10:51

생전에 오지 못 한 것이 그저 미안하고 죄송 합니다.
노대통령님 글을 읽다 보니 눈물이 글성글성 하네요.
부디 건강하세요.저 세상에서도.친개의 바람이 되어 주세요.

ped3695 2009.05.25 19:06

대통령님 부디 좋은 곳에 가지길...사랑합니다.세상 잘살게 지켜주세요. 저도 대통령님 마음 이었으면 합니다.

항상함께 2009.05.26 19:06

대통령님..이거 보고계신가요?저요 철모를때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저 아직 고2밖에 안되서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런
데..제가 더 어렸을적 대통령님이 아무이유없이 신기하고 좋아서 부러워서 여러차례 메일을 보냈었죠 잘 기억은 안나지만..비서
분께서 답장을 해주셨던거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님께 전달 되었을거라 믿을래요, 정말...보고싶어요..다시 메일하셔야죠...T_T...
민주사랑0523 2009.05.26 22:42

좀 멀고 생업에 시달리다 보니 사랑하는 님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못봐려 가는 제 모습이 여간 부끄럽습니다.가지않으면 살아서있
는 동안 환이 될거 같아 오늘은 가까운 대한문 으로 찾아갔습니다. 광화문 전철역에 내려 종로3가까지 걸어가는길이 왜이리 멀어보
이나요! 국화1송이 받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왜이리 기나요! 담배갑에 보니 한개피 남은 담배 불붙여 놓는 손은 왜이리 서러운지
요!눈물만 흘러내리는 내 가슴은 왜이리 답답한지요! 그러나 당신이 안계신 이세상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로 위안이 왜
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부디 나의 영원한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오! 사랑합니다 ...영원히

chs1007 2009.05.28 03:16

사랑합니다. 노공이산님... 부디 평안하세요... 그동안 설움 아픔 다 내려놓고
행복한 모습으로 평안히 가지길 기도합니다.

울보a 2009.05.28 05:38

노공이산님..바보.. 왜이렇게 가슴이 미어지게 가십니까?.. 보고싶습니다..
해맑게 웃으시는 미소가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인자하게 후덕하신 미소.. 다시 뵙고 싶습니다..

님의 이마주름이고파~ 2009.05.28 18:53

잠시후 찾아뵙게요.. 먼길 쉬엄쉬엄 천천히 아주천천히 쉬어가세요..

1213 2009.05.28 21:04

자꾸 눈물이 나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히 가세요...
하늘에서 좋게 사시길 바랄게요...

아자아자아짜 2009.05.28 23:09

이제야 찾아온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의 무지함 때문이라구 변명하기엔 그 무지함이 너무나 큼니다. 죄송합니다. 노공이산
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연 2009.05.29 18:18

대통령님을 보내는 오늘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 저기 당신이 남기고 가신 흔적들만 찾아 다닙니다 대통령님 저 함성
이 들리 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 하고 있는지 돌아 올수만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눈물이 또 나네요 마음이 너무 아픉니다 대통령님 안녕히 가십시오

항상그곳에계시죠? 2009.05.29 23:41

대통령님의 자상함이 또 느껴지네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행복 사랑 2009.05.30 11:41

어제밤에 글을좀 쓰고싶었는데 작은여석이 아직 젖을 먹어서 이제야 글 몇줄 올리네요 우리 대통령님은 왜 이렇게 미안해 하셨을
까요 우린 대통령님께 더 미안한데....

찌니3288 2009.05.30 23:11

아아~ 진작에 들어와서 노공이산님과 대화좀 해볼걸... 너무 늦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안타까움에 눈물이 납
니다

sonamu1969 2009.05.31 23:53

정말 안타깝습니다..전 예전에 가입해서 둘러는 보았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린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세상에
저는 어찌나 이리도 어리석었을까요..그립고 보고 싶어서 미칠것같습니다..대통령님이 남기신 이글들 절대 없애지 마세요..두고 두
고 볼겁니다

함께하는세상에서 2009.06.02 16:59

돌아오실수 없다는게..그저 맘 아프네요..
할아버지 목소리 그 억양 말투..
다시 들을수 없다는게 슬프네요..
때로는 개구지개..때로는 은화하게..
그렇게 웃으시던..그 모습 뵈수 없다는게 아직은 믿기지가 않네요..

둘체미타 2009.06.03 01:09

지금 어디 계세요?

나도마보입니다2 2009.06.05 14:59

오늘도 올 대통령님이 보고파서 들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요즘 어찌 지내시나요.정말 존경합니다.글구 님 보고픡니다.

따두미 2009.06.05 17:45

꼭한번 찾아 빌려고 했는데 생전에 못본것이 이렇게 한이 될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 노짱님 꼭 어딘가에 살아 계실것 같습니다
꿈에서라도 좋으니 제발 한번만 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사랑 합니다

눈물이슬 2009.06.05 21:13

노공이산.... 이젠 그런 별명 하나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노공님....
대체 어디로 가버리신거죠? 노공님이 없으신게 이렇게 한이 될줄 몰랐습니다.

먼지언니 2009.06.07 17:40

저희들맘 알아주시는 유일한 대통령이셨는데.....오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보고싶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마르지도 않네요..

가을여자 2009.06.18 23:31

마음속 한가운데..~~
구멍이 뻥뚫린 요즘..아무리 그자리를 채우려도..~
매워지지 않음은 왜..일까요..~??

원통해서 서럽고..~보고파서 눈물이 마르지않고..~
그리워서 미칠것 같습니다..

노공이산님..~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영영..~~돌아오실수 없으신지요..?

기주엄마 2009.06.24 14:44

노대통령님!
저희와 글나누우실분을 말씀해주셔야죠
이제 누구랑 힘들고 어려움을 말씀나누나오
먼곳에서라도 회답주세요 너무뵈고싶습니다.
노짱님, 찾아뵈는것, 소홀히 생각했던것, 많은 반성과 때늦은 후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 알려주세요 꼭 할수 있도록 마음에 세기겠습니다
무지한 백성이 뵈하나 아는것이없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하여주세요그리고말씀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뭐든할쉬있게요 편히쉬세요 또뵈겠습니다

하늘마음 2009.06.30 17:17

계실때 댓글과 가신후 댓글을 다는 것도 제게는 기적입니다.이곳에서 님은 살아있으니 아직도 님이 우리곁을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요.
지나고 나니 모든것이 후회인것을..
아직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2의 노무현이,, 제 3의 노무현이 나올때 까지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켜야 겠습니다

아재 2009.07.01 03:02

게시판 글이 300,000번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님의 댓글을 볼 수 없게 되어 너무 슬픡니다. 하지만 게시판 글이 3백만, 3천만,3억이 될 정도로 지속되고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땠 대통령님의 댓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도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님 그립습니다.

날아오금동 2009.07.03 23:52

퇴임후에도 이케 바쁘셨군요 tv에서 소식들었을때 조금 뼈딱하게 봤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구서... 죄송합니다. 그립습니다.대통령 노무현님

tmfg18652 2009.07.19 09:24

그리운 대통령 노무현님 사랑합니다

무명민초 2009.08.05 19:50

차라리 죽어서라도 님을 보고싶고
그럴수 없다면 이제 울지 않으려 합니다.
님을 공부하고 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혼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18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4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담 (45)	32567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4	노무현	2008.10.02
현재글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3	노무현	2008.03.27
13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78	노무현	2008.03.09

12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2	노무현	2008.03.06
11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6	노무현	2008.02.29
10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5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고(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 무 · 현 · 재 · 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만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8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모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업무** 055-344-1005